

## 시·도, 착한가격업소 ‘짚꼼 지원’…고물가에 생존 위기

광주 333곳·전남 570곳 등 운영  
연간 지원금 85만~100만원 불과  
“식재료·인건비 인상에 적자 지속”  
“예산 확대·체계적 지원 등 절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만큼은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70)씨는 7~8가지 밀반찬에 제육 볶음, 등갈비김치찜 등 매일 다른 메인 메뉴를 제공하는 ‘백반 한상’을 단돈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보기도 드문 착한 가격 덕분에 식당 주변 근로자들은 물론, 정성 가득한 한끼를 챙겨 먹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메뉴를 파는 인근 가게보다 3000원 이상 저렴한 데다가 30년 동안 착한 가격을 유지해 온 덕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주변 업소와 비교해 △가격 △정결 △서비스 면에서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근 상권 기준 평균 가격 미만의 품목을 제공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1년 미만 평균 가격 이하 운영(재지정 시)해야



광주·전남지역 착한가격업소가 물품 지원 등에도 고물가에 적자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착한가격업소.

하며, 위생·정결 기준(수세·배수시설 청결도 등), 공공성 기준(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통과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음식 가격은 그대로거나 소폭 오르는 데 그치지만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가게 운영 비용은 계속해

서 늘고 있어서다. 정국 불안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업주 김씨는 “시장에서 직접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해와 반찬을 만드는 등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었는데, 작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식당

을 운영하고 빚을 메꾸며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존의 착한가격업소 혜택으로는 나날이 상승하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

는 탓이다.

20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196개소 △2023년 226개소 △2024년 333개소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착한가격업소는 570개소로, 광주와 마한가지로 △2022년 368개소 △2023년 368개소 △2024년 548개소 등으로 늘고 있다.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로부터 공공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필요 물품(기자재, 소모품 등), 업소 인증 표찰 및 홍보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착한가격업소 관련 사업비는 약 3억5000만원으로, 업소당 연간 평균 10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약 2억3000만원)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국비(5700만원)→9200만원)가 늘면서 시비(1억3000만원)→2억1000만원)도 확대됐다. 전라남도도 업소당 8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및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지원책으로는 업소가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77시간 만에 ‘완전’

주불 진화 후 잔불까지 제거  
생산라인 절반 이상 전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77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20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55분 화재 진압 완료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 44분이며, 주불 진화 46시간여 만에 진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소방당국은 잔불 재발화 가능성이 있지만 화력이 점차 약해지고 언제든 공장 내부로 진입해 불을 끌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건물 해체를 통해 재발화 우려가 있는 타이어 소재들을 제거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는 며칠 더 지속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연기 발생은 3~4일 내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화재로 2공장 주요 설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설비를 비롯해 반제품 가공 및 성형 공정 설비의 50~65%가 전소됐다. 전체 공장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체 생산능력(연간 1600만개) 중 상당 부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는 최소 3명으로 확인됐다. 직원 1명이 대피 중 건물에서 추락해 골절

상을 입었으며, 소방대원 2명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주민 피해 신고는 1236건이 접수됐고, 이 중 603건은 두통·구토 등 인적 피해였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 관련기사 6·13면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터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